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춘향전>을 통한 한국문화 교육

-외국인학습자 대상으로-

2011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金 燮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昌龍

<춘향전>을 통한 한국문화 교육

-외국인학습자 대상으로-

A Study on the Korean Culture Education

of "Chunhyangjeon"

- Targeting Foreign Learners -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金 燮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昌龍

<춘향전>을 통한 한국문화 교육

-외국인학습자 대상으로-

A Study on the Korean Culture Education

of "Chunhyangjeon"

- Targeting Foreign Learners -

위 論文을 文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金 燮

金燦의 文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12月 日

審查委員長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審查委員 _____ 印

목 차

제 1 장 서 론	1
-----------------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4
제 3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8

제 2 장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교육내용 분석	11
----------------------------------	----

제 1 절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	11
제 2 절 고전소설을 통한 문화 교육의 의의	12
제 3 절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고전문학 작품 현황 및 분석	20

제 3 장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수·학습 방안 ..	33
----------------------------------	----

제 1 절 고전소설 선정 기준과 <춘향전> 선정 이유	33
1. 작품 선정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	33
2. 고전소설 작품 선정 기준	36
3. <춘향전> 선정의 이유	38
제 2 절 <춘향전>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학습목표	39
1. <춘향전> 학습의 목표	39
2. <춘향전> 텍스트의 선정 기준 및 구성	40
제 3 절 <춘향전>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구성의 실제	43
1. 각 차시별 학습목표와 구성	43
2. 각 차시별 학습지도안	44
1) 1차시 지도방안	44

2) 2차시 지도방안	48
3) 3차시 지도방안	55
4) 4차시 지도방안	58
 제 4 장 결 론	64
 【참고문헌】	66
1. 자료	66
2. 국내문헌	66
3. 외국문헌	69
 ABSTRACT	70



【 표 목 차 】

[표 2-1] 단계별 문화별 문화항목	15
[표 2-2] 건국대학교 『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21
[표 2-3]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22
[표 2-4] 서울대학교 『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24
[표 2-5]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25
[표 2-6] 연세대학교 『한국어 읽기』에서의 활용 형태	26
[표 2-7]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27
[표 2-8] 한국어 교재에서의 활용 형태 양상	29
[표 3-1] 문학텍스트 선정을 위한 체크 리스트	36
[표 3-2] 각 차시별 학습주제 · 목표 · 내용	43
[표 3-3] 1차시 학습지도안	47
[표 3-4] 2차시 학습지도안	54
[표 3-5] 3차시 학습지도안	57
[표 3-6] 4차시 학습지도안	63

제 1 장 서 론

모든 언어에는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문화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교육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상호관계는 일상의 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다.

요즘 성행하는 한류열풍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역시 이에 발맞추기 위해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한국문화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전과는 다른 교육 방향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후자의 경우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주된 목적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과 글을 문법적으로 다르지 않게 구사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담화상황에서 본인이 의도한 의미를 정확하게 혹은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믿음, 감정, 태도까지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화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가지는 언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 담화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한국어 교육 역시 한국문화 교육이 전제된 방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고전소설을 통한 한국문화 교

육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 방안이다.

고전소설은 여러 문학 장르들 중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문화라는 형태로서 반영한다. 또한 소설은 등장인물의 행위나 사건을 통해서 가치관이나 정서 등의 정신적인 요소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선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소설은 교육적 기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학습자들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문학 텍스트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어 표현, 그리고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익히기를 원한다. 그중에서도 현대 텍스트에 대한 교육의 요구가 강할 뿐만 아니라 그 기대도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 고전소설인 <춘향전>을 통한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의 활용 방안을 보여주고자 한다. 즉 실제적으로 교실 학습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논의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서지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의 정의 및 범위,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각 대학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 고전문학 교육 현황 등을 분석하고, 고전소설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한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이 모두 존재해야 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문화교육만 있고 한국어교육이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목표가 상실되고 주객이 뒤바뀐 교육이 된다. 마찬가지로 문화교육이 단순히 문화 항목 교육이나 텍스트 활용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문화교육 고유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존재하지 않으며 굳이 문화교육이라 말할 필요가 없어진다. 같은 선상에서

1) 최지현, 『문학교육과정론』, 역락, 2006, pp.211-212.

문학교육이 내용 이해 수준의 교육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텍스트 내의 어휘, 문법 교육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굳이 문학 작품을 한국어교육의 텍스트 가져와 교육에 활용할 이유는 사라진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이란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문학 교육이 가지는 고유한 성격을 통해 한국 문학만이 가지는 느낌과 감정을 학습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스스로 한국 문학 작품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말하기 · 듣기 · 쓰기 능력의 활성화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기존의 논의에서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네 가지 기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도할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런 흐름은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 과정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중심 · 상황 중심의 한국어교육 과정에서 문학을 활용할 때 문학 작품 선정이 적절했는지,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중심 · 상황중심의 한국어 능력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한국 문학만의 고유한 맛과 특수한 정서를 알 수 있게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교육은 학습자의 전체적인 활동에서 한 부분에 불과하며 학습자가 한국 언어 ·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교육은 외국인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문학 작품에 스며든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 가치관, 정서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여 한국어교육 정규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가 문학 작품 텍스트에 내재한 문화 · 정서적 이질감을 극복하여 스스로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학 작품 텍스트를 선정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위해 고전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한국문화를 중점으로 다룰 것임을 밝힌다.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그동안 한국어교육의 목표가 주로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학과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과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문학교육의 범주나 텍스트로 문학을 제시한 연구로는 김정숙, 황인교, 윤여탁, 윤미정, 정은화 등이 있다.

김정숙²⁾은 문화 교육의 범주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교육을 들고 있으며 조항록³⁾ 역시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의 예로 문학 작품의 이해와 활용을 들고 있다. 문학 작품은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화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황인교⁴⁾ 역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학 교육을 제안하면서 문학적 언어의 다층적 성격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함축하여 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반영하므로 목표와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윤여탁⁵⁾은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은 보다 고급스런 한국어 학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문학이 고급스런 언어 표현이 산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행위이자, 한국의 문화를 학습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학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미정⁶⁾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문학 텍스트로 전래동화를 선정하고, 교육적 가치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
- 2) 김정숙,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제 10호, 한글 학회, 1997.
 - 3) 조항록,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한국어교육』 9권 2호,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1998.
 - 4) 황인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기초단계의 문학작품 읽기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6집, 이화여자대학교, 1998.
 - 5)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1999.
 - 6) 윤미정,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전북대학교, 2008.

가능성과 의의를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전래동화의 특성을 살피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전래동화만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로 전래동화는 구비로 전승되다가 문자로 기록된 문학이라는 점, 아동을 위한 문학으로서 교훈적인 내용을 가진 한국 민족 공동의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민담의 하나로 전 세계에 비슷한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가 분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은화⁷⁾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있어서 문학사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제고 그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언어를 직접적인 매개로 하는 문학을 학습 언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자연스럽게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가 월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에는 조영미, 장유경, 박영순 등이 있다.

조영미⁸⁾는 한국어 사용자 외의 일상에서 나타난 의사소통의 문제들이 외국어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한국어 학습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영되는지를 살폈다. 일상문화 요소에 중점을 두고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교육 방안을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장윤정⁹⁾은 한국어 교재에 있는 문화 교육을 분석하고 향후 추구해야 할 문화 교육의 방향을 살폈다. 주제 및 소재에서의 한국문화, 언어에서의 한국문화, 글에 투영된 한국문화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는 내용적 측면에서와 학습자 수준에 따른 난이도 시각 자료 학습 활동의 구성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박영순¹⁰⁾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면 문화교육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문화교육의 가능과 역할을 살피며 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윤경¹¹⁾은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작품 선정을 위한 평가

7) 정은화,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시 교육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8) 조영미,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1996.

9) 장윤정, 「한국어교재에서의 문화교육 분석」, 연세대학교, 2002.

10) 박영순,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제23학, 2003.

11) 신윤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고려대학교, 2008.

항목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텍스트 선정의 예를 보이고 선정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초점화된 수업 목표별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한국어교육에 활용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재 편성 방안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읽기 자료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권순희¹²⁾는 민간전래 동화나 고전소설, 판소리들을 쉬운 말로 제시하거나 영어 번역으로 읽을거리로 만들어 한국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주도록 하는 것과 한국의 전통사상과 외국인의 사상을 비교·대조한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제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같은 동·서양의 두 작품을 선정하여 언어상의 차이로 언어표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서양인의 사고방식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희정¹³⁾은 문학 외적·내적 측면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고전문학 작품의 선정 기준 8가지를 제시하였다. 외적 기준에서 '교육 과정 및 교수 요목과의 연계성', '학습자의 언어숙달도', '학습자의 문화 및 문학적 배경 지식'을 제시하고, 내적 기준에서 '작품의 문학적 가치와 대중성', '분량과 구성의 복잡도', '언어적 요소의 실제성', '주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작품의 언어 교육적 활용도'를 제시했다.

이숙진¹⁴⁾은 교재에서의 문학 교육 실태를 살펴본 후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교재에 수록된 작품의 수를 늘리거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적절한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통합적 활용 방안의 연구를 제안했으며 텍스트를 통해 문학 작품 이해 교육은 물론 언어 교육, 나아가 문화 교육까지 병행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12) 권순희,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1996.

13) 서희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 서사문학 작품 선정 방안」, 『고황논집』 36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2005.

14) 이숙진,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강남대학교, 2008.

문화와 통합한 한국어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성희¹⁵⁾는 설화를 통해 한국어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학습 모형을 구성하였다. 설화는 한국어 학습에서 한국인의 심성, 문화, 역사, 관습, 미덕, 예의범절 이해를 비롯한 속담, 어구를 통해 어휘 확장과 흥미까지 느낄 수 있는 학습자료라고 설정하였다.

정은화¹⁶⁾는 한국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가 광범위한 목표 아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한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시 교육의 특성과 중급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국내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때 문학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시 텍스트는 언어적이고 기능적인 목표를 가져야 하며 수준별 시문학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주은정¹⁷⁾은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이 중요함에 따라 문학 텍스트를 선정하여 실제 초급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설계하였다. 문학 텍스트를 전래동화와 세계 명작 동화로 한정하여 초급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끌게 하였으며 다양한 교수모형으로 수업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김보경¹⁸⁾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텍스트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필선정 기준을 선정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실제 수필 목록과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제시하여 수필 사용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문학 교육 모형 중, 개인 성장 모형을 바탕으로 조경희의 수필 ‘얼굴’을 활용한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면서 학습자가 문학 텍스트의 주제를 개인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표현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문보라¹⁹⁾는 중급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래동화의 활용으로 읽기 기능 안에서 문화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적 요소를 내포한 읽기 텍스트로 적합한 전래동화를

15) 이성희,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0권 2호, 한국어 교육학회, 1999.

16) 정은화,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시 교육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17) 주은정,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2002.

18) 김보경,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연구」, 연세대학교, 2002

19) 문보라,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2009.

활용성 제안 및 읽기 수업을 위한 목록 작성과 학습자 언어 능력을 고려한 재구성 방안을 거쳐 문화 중심의 읽기 수업안을 제안하고 있다.

홍혜준²⁰⁾은 고전문학을 통해 생활, 풍속, 한국의 자연환경, 한국어 특유의 언어유희나 통사구조, 해학, 자연 친화 사상, 효사상, 유불선 사상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학을 언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둘째 문학을 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 셋째 문학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문학을 문학으로 가르치고자 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어떻든지 각각의 관점에서 모두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은 한국 문화의 이해와 한국어 숙달도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자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표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전 문학 작품을 교육해,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화 내용을 중심으로 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학자료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와 연계한 연구 또한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논의와 장르의 편중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학 장르의 활성화를 여는 측면에서 본고가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제 3 절 연구 대상 및 방법

현재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교육 과정은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의 언어 영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문화 교육으로서 문학 교육 위주의 수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20) 홍혜준, 「고전작품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이는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도 한국어 학습의 1차 목표는 언어 능력 향상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습자의 1차 목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 역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학습자 대부분이 1년 이내의 한국어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경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대학에서 학업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내국인 대학생 수준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키우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네 가지 언어영역 교육과 함께 문화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 특히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능력을 동시에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학 작품에 내재한 한국인들의 사상, 감정, 가치관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학습자 스스로 한국 문학 작품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물론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학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초점을 둔 수업 대상은 중·고급 과정의 한국어 학습자로 한정한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느낄 수 있는 고전문학, 그 중에서도 소설교육을 통해 문학 교육에 대한 교수 방안을 설계하여 실제의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을 구성하려 한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고전소설을 통한 문학 교육의 의의를 살펴보고, 현재 한국어 교재의 고전소설 교육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고전소설 작품을 선정 기준과 고전소설로 한국어 문화를 교육할 때 어떤

문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그리고 <춘향전>을 통해 실제 교수 학습 방안을 설계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한 후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제 2 장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와 교육내용 분석

제 1 절 한국어교육에서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

한국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인의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문학 속에는 한국문화가 드러나 있다. 현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재에 수록한 작품들은 한국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국정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데 장르를 분석하면 주로 현대시와 현대 소설, 수필 등으로 고전문학 교육은 미미한 현실이다.

고전소설은 한국인의 전통적 정신이 형상화되어 있어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 좋은 읽기 자료가 될 수 있다. 고전소설 교육이 삶의 교육이고 문학 교육의 목표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이 한국 고전소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 삶의 이해일 것이다. 현대의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알고자 할 때 현재의 한 단면만을 잘라서 보기란 어렵다. 한국인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총체적 바탕과 근원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고전문학을 통하여 한국인의 말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가 깊게 이루어지면 한국어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고전문학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서, 생활습관, 가치관, 자연, 삶의 태도 등을 알게 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

조윤제는 고전소설의 교육적 의의에 대하여 "고전소설이야말로 민족 역사 창조의 이상을 가장 뚜렷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이상을 몸소 체득함으로써 참다운 현실적 민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건전한 민족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가능하다. 외국인들은 한국 역사를 이루어왔고 앞으로 이루어 나갈 근본이 되는 한국인다운 생활상을 고전소설을 감상하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소설은 한국인의 언어, 문화, 정신, 가치관, 풍속 등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문화교육과, 한국어의 이해와 표현학습을 통합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심미적 언어교육에 필수적이다. 이에 고전소설 교육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다. 한국의 말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한국인의 정서, 가치관, 사상을 등을 암으로써 한국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국내의 정규 국어과정의 고전소설 교육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상이 아닌 학습 언어국가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더욱 폭넓은 수용의 차세가 필요할 것이다.

제 2 절 고전소설을 통한 문화 교육의 의의

1. 문화의 개념

문화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며 문화에 대해 정의 내린 것만 해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 본고에서는 학자들이 정의한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문화의 개념을 잡고자 한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문화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이며 특히, 예술, 도덕, 종교, 제도 등 인간의 내면적, 정신적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다. 이렇게 볼 때 문화는 보통 인류가 만들어낸 정신적·물질적 산물의 총체를 의미한다. Kroeber & Kluckhohn(1963)에서 열거한대로 지식, 신념, 예술, 법, 관습, 습관, 능력, 도덕, 언어, 결혼, 제도, 산업, 사유 방식, 삶의 태도, 심미적 기준, 기술, 인간의 작품과 활동, 물적재원 등 문화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또 Larson & Smalley(1972 : 39)에서 지적한 대로 생각, 관습, 기술, 예술 등 의 통합체로 단순한 총체적 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Edward Tylor(1958)에서는 “문화는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획득된 다른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복합체이다.”라고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rooks(1975)에서는 문화를 넓은 의미의 문화인 인간 생활의 모든 것(everyth-ing in human life)과 인간 생활 중에 최상의 것(best in human life)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전자는 흔히 말하는 little C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후자는 big C에 해당한다.

Hendon(1985)은 문화를 big C와 little C로 구분하면서 고급 문명의 성과들인 big C는 주로 과거와 관련되고 little C는 일상 생활문화 중심으로서 현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Hendon의 이와 같은 문화에 대한 구분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며 한국어교육에서도 문화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big C와 little C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이석주(2002 : 2)에서는 문화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형성 개발되고 혹은 순화한 성과를 가리는 것이라 보았다. 언어 · 풍습 · 도덕 · 종교 · 학문 · 예술 및 각종 제도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습득하여 공유하고 있으면서 주위나 후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생활양식 내지 행동 양식, 가치관의 총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은 의도적이건 무의도적이건 그 집단의 규범에 의하여 형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사고와 행동은 사회화하여 종적 · 횡적으로 계속 전달되면서 사회 의식화한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문화는 한 민족의 구성원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일상 생활문화, 예술문화, 이들과 관련한 관념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 교육의 범위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학습할 문화 요소의 선정과 연계된다. 요소 선정이 잘못 되면, 이는 교육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문화 교육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의 하나는 문화 요소의 선정이다. 이러한 문화요소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조창환(1996 : 118)에서는 그것을 ①학습자 집단의 구성, ② 적절한 교재와 교사용 지침서, ③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라고 보

았다. 특히 학습자의 경우 성인인가 어린이인가, 외국인인가 교포 2세인가, 외국 거주자인가 한국 거주자인가, 일본이나 중국 출신의 동양인가 유럽이나 미국 출신의 서양인인가 등에 따라 학습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며 학습자의 지적 교육 수준과 기본 교양의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화항목을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숙(1996)은 한국어교육을 할 때 함께 교육해야 할 문화 내용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김정숙이 제시한 문화 내용은 주로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언어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한국문화를 딱딱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조항록(2000)²¹⁾에서는 초급 과정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능력을 제시하며, 이러한 문화 학습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문화항목을 제시하였다. 조항록(2000)에서 제시한 문화항목은 언어적인 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초점으로 교육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교육의 항목 선정, 문화교육의 범위 역시 문화교육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각 단계별 설정이 필요하다. 김수현(2005 : 78-79)에서는 단계별 문화항목을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와 관련하여 초급, 중급, 고급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표2-1] 단계별 문화별 문화항목

단계	문화 항목
초급	한국의 음식, 식사예절, 인사예절, 날씨, 긴급 전화 한글, 한국인의 이름, 호칭어, 경어법, 비어어적 표현 한복, 명절, 잔치, 경로사상 놀이, 태권도, 고궁 지하철, 기차, 한국의 돈
중급	명절 음식, 주도, 주택의 종류, 일기 예보 감탄사, 의성어, 의태어, 외래

21) 조항록(2002)은 문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한국의 문자, 어휘 ② 언어생활규범, ③ 한국인의 의식주, ④ 현대 한국인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전통 문화적 요소, ⑤ 한국의 공공시설과 제도, ⑥ 한국의 계절과 날씨, ⑦ 한국인의 사고방식, ⑧ 한국인의 취미생활과 여가 생활, ⑨ 한국인의 경제 활동, ⑩ 한국인의 학교생활, ⑪ 한국사회의 예절, ⑫ 한국의 교통, ⑬ 숙박시설물 소개와 이용 방법, ⑭ 한국의 자연, 지리, 관광지

	어, 속담, 관용 표현, 세시풍속, 둘, 회갑, 역적 사건과 인물 사물놀이, 운동의 종류, 노래 교육열, 버스전용차선, 신용카드
고급	외식, 여가, 여행, 유적지와 명소, 쇼핑문화 방언, 은어, 다양한 종류의 글, 신문기사 관훈상제, 24절기, 민간요법, 풍수지리, 고사영화, 연극, 문화재, 전시회, 한국의 춤 한국의 외교 정책, 종교, 취업박람회, 노령화사회

문화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 첫째, 단원의 주제와 연계하여 선택하고 둘째,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제시 비율을 고려하며 셋째, 학습자의 언어 능력 수준에 맞는 내용을 선정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위의 단계별 문화항목은 현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것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단계별로 실제 수업에 반영할 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은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은 어디까지나 언어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 유의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문화교육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고전 소설을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함으로 한국어의 관용어나 속담, 격언 등의 함축된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화교육을 통해 이해한 한국문화를 자국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한국어의 이해를 돋는 데 있다.

셋째, 고전소설 작품을 통한 교육은 한국문화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옛날부터 형성된 한국인의 정서, 생활습관, 가치관, 자연, 삶의 태도 등을 배울 수 있다.

3. 문학 교육의 의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에 대해 신주철은 “문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곧 학습자가 심미적인 감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를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유능한 교사와 능동적인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매개로 만나 창조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문학이라 불리는 가상의 체험 공간을 하나의 현실로 감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²²⁾

라고 말하고 있다. 즉, 한국어 학습자의 인생 전체를 볼 때, 한국어교육 과정은 전체가 아니며 학습자가 한국어와 한국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과정을 마치고 난 후 학습자가 한국 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 그를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이끌어 나가는 매개체라는 것이다.

그동안 출간된 한국어교재에서는 한국 문학이나 문화 항목에 대한 단원이 있어도 실제 한국인의 사고방식, 가치관, 관습, 습관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제 수업 내용에 반영하지 못하고 한국 문학·문화에 대한 형식적인 제시나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제시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 문학과 문화를 수동적이고 피상적으로 접하게 만들어 한국 문학과 문화에 대한 지식의 수준에 머물거나 문학 교육, 문화 교육 자체에 대한 흥미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점은 문학 교육과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학·문화 교육이 더 이상 목록 제시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 교육과 문학 교육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는 그 개념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교육 상황과 여건에 따라 목표가 다양하게 수정되고 첨가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 현장에서 문학·문화 교육이 네 가지 언어기능 향상을 위한 부수적인 교육 제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화 교육으로서 문학 교육을 논의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목표설정일 것이다. 외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역할에 대해 J. Collie와 S. Slater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²³⁾

①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 문학작품은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초급 단계의 학습이 끝나면 고급스러운 문장을 보아야 하는데 묘사하기, 서사하기, 풍자하기, 비유하기 등의 고

22) 신주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p.26.

23) J. Collie and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급스러운 문장을 문학 작품들에서 익히게 된다.

② 문화적 풍요화(cultural enrichment): 문학 작품은 문화적 풍요를 보여 준다. 문학 작품 속에 담긴 문화 맥락은 문화 이해에 유익하다.

③ 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 문학 작품 속에는 언어자료가 풍부하다. 어휘, 표현, 문체 등이 다양하여 학습 대상언어의 세계를 확장하는데 유익하다.

④ 개인적 연관(personal involvement):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학습자는 대상언어를 통해서 상상력의 세계를 넓히고 고급스러운 언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한상택(2001)은 문학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을 살려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⁴⁾

첫째, 문학 자체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져 적극적 참여의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다.

둘째, 문맥을 통해 어휘학습과 다양한 문형의 반복을 통한 자연스러운 문법학습에 일조 할 수가 있다.

셋째, 많은 읽기를 요구하기에 독해 능력을 향상하며 자기와의 대화과정인 독서과정을 통해 자기수양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

넷째, 단순한 정보적 전달이 아닌 정의적 감화에 의해 장기기억술에 도움이 되고 창조적인 감정표현이나 사고능력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인위적 조작이 아닌 진정한 교재가 될 수 있다.

여섯째, 토론활동과 상황, 맥락을 통해 말의 격식을 알 수 있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일곱째, 간접체험에 의해 문화를 익히도록 해주며 이 때문에 목표언어에 대한 스키마 형성에 이바지한다.

여덟째, 여러 가지 수사적 구조 및 비유적 표현을 익히는 과정으로 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윤여탁은 외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예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의 예를 들면서 이민자들이나 유학자들, 주재원 자녀들에게 특별히 제

24) 위의 글, p.23., 재인용.

공되는 ESL 과정은 정규 교육 과정과 병행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자국어교육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운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미국의 언어교육은 외국어교육을 넘어 자국어교육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완벽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ESL은 미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받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미국의 언어(Language Art)와 문학(Literature)등을 학습을 통해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과정을 이수하면서 학습자는 문법 중심인 ‘언어’를 배우고, 최종적으로는 ‘문학’을 교수-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⁵⁾

이렇듯 언어교육의 목표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외에 사회, 문화적 능력 향상까지 염두에 두는 것은 목표 언어권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는 완전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방안과 함께 좀 더 고급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문화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며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은 이런 점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교육 제재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 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 교육을 통해 접한 한국 문학 텍스트에서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 문화, 습관을 이해한다.

둘째, 언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함께 문화 능력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이는 실제 한국어 발화 현장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은 이해하면서도 문화 차이에 의한 감춰진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기른다. 문학 작품은 국가나 민족의 문화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목표 언어로 쓰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단순한 내용 파악 수준의 문학 교육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국에서의 기본 교

25) 윤여탁,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 문화사, 2007, pp.73-76.

육 중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런 학습자를 대상으로 단순히 내용 이해 수준의 문학 교육을 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교육은 지루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대학 진학 후 국내 대학생들과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전문학을 한국어교육에 이용함으로써 드러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고전문학을 통한 한국어 학습은 자연히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읽기를 통해 이해 능력을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 작품 이해력을 바탕으로 쓰기와 말하기 듣기 등 모든 언어 기능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둘째, ‘한류 열풍’을 형성한 한 축인 드라마, 영화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텍스트로만 한국 고전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보다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문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후 한국어 학습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한국 고전문학 작품과 문화를 이해하게 된 학습자들은 다시 ‘한류 열풍’에 일조함으로써 ‘한국어교육’과 ‘한류 열풍’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셋째, 고전문학을 한국어교육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고전문학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은 어떠하며 작품에서 드러나는 시대상과 사회상을 통해 한국 고유의 인습과 문화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들은 고전문학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작품 속에 나타나는 한국의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런 다문화 경험을 통하여 작품 속의 한국 문화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인구의 이동이 보편화 되다시피 한 현실에서 자신의 문화를 지키면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고전문학은 자신의 문화와 상대의 문화를 비교하여 이해하고 나서 자신의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고전문학을 이용하여 한국어교육을 할 경우 기준에 주로 사용하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방편의 하나로 문학 교육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벗어나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작품 이해를 바탕으로 초·중등 교육에서의 과제 수행처럼 학습자 스스로 문학 작품의 주제를 찾아보고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위의 단계별 문화항목은 현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것으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였으며, 현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단계별로 실제 수업에 반영할 시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중급의 주도는 성인학습자에 한해야하며, 청소년학습에게는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 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급에 속해 있는 유적지와 명소는 중급부터 가르쳐도 될 것이라 판단된다. 고급에 넣을 경우 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고전문학 작품 현황 및 분석

외국어를 학습할 때 듣기, 읽기의 이해 과정을 거치면 쓰기와 말하기와 같은 표현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문학은 좋은 듣기, 읽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할 때 이해 교육을 위한 훌륭한 학습 자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이해 교육을 바탕으로 표현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어 언어교육의 4 영역을 모두 실현할 수 있다.

언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이 중요하다는 것은 비교적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이 언어활동의 정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형태이자 현실을 반영한 살아 있는 언어 자료이기 때문일 것이다.

염은열은 고전문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고전문학은 우리의 구어활동 및 대중문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일 수 있으며, 교육내용을 추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귀납의 자료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

다.²⁶⁾이는 현대문학이 문자문화의 산물인 반면 고전문학이 구어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바꿔 말하면 고전문학이 비록 과거 한국 문화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구어문화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언어교육의 한 부분인 한국어교육에서 유용한 텍스트 자료임을 의미한다.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을 연구하기에 앞서 한국어 교재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국어 교재에서 고전문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또한, 수록 작품들을 각 문학 작품별로 학습자의 단계와 제시문의 형태, 활용 방법에 대해 구분하여 정리해 본다. 각 교재의 학습자 단계와 제시문의 형태뿐 아니라 교재에서 사용된 고전문학 작품의 활용 형태를 더하여 분석하였다.

교재는 현재 한국어교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재 개발이 초급, 중급, 고급까지 고루 개발된 기관에서 편찬한 교재 중 최근 다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도 많이 활용하여 수업하는 교재를 대상으로 하였다.

1. 건국대학교 『한국어』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은 1971년 시청각교육 센터로 설립되어 1998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어』는 총 2편의 고전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교재에 제시된 고전문학 작품 목록과 활용 형태는 다음과 같다.

[표2-2] 건국대학교 『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단계	교재명	단원	작품명	제시형태	장르	활용형태
중급	한국어3	3과	소가 된 계으름뱅이	희곡문	민담	읽고 답하기, 연극 활동
	한국어4	18과	효녀 심청	희곡문	고소설	어휘 연습, 읽고 답하기, 이야기 추측하기, 이야기 다시쓰기

26) 염은열, 『고전문학의 교육적 발견』, 역락, 2007, p.39.

건국대학교에서 편찬한 『한국어』는 초·중·고급 과정을 통틀어 고전문학을 활용한 수업이 부족하다. 활용의 형태도 <소가 된 계으름뱅이>에서는 연극 활동을, <효녀 심청>에서는 어휘 연습과 이야기 다시 쓰기를 넣어 본문 내용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써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교재와는 달리 두 작품 모두 본문 제시 형태를 희곡문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접하게 하여 언어교육의 4가지 영역 중 말하기 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앞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한 문학 교육의 형태를 염두에 둔다면 다양한 문학 학습이 가능한 활용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1990년에 설립되어 현재 매년 약 1,3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 프로그램을 거쳐 가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편찬한 『서강한국어』는 총 6편의 고전문학 작품을 제시하고 있다. 교재에 제시된 고전문학 작품 목록과 활용 형태는 아래와 같다.

[표2-3] 서강대학교 『서강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단계	교재면	단원	작품명	제시형태	장르	활용 형태
초급	서강한국어2B	4과	콩쥐팥쥐	전문요약	민담	그림보고 빙 그림내용 파악하기, 글 읽고 성격 메모하기
중급	서강한국어3B	5과	급도끼은 도끼	텍스트없음 ²⁷⁾	민담	묻고 답하기, 어휘지도 적성 후 말하기, 나라를 세우면 만들고 싶은 법 얘기하기
	서강한국어4B	5과	단군신화	전문	신화	
고급	서강한국어5B	2과	청개구리 이야기	전문	민담	전문과 대답으로 내용 확인, 등장인물·성격 비교, 작곡 전래 동화 비교하기
			홍부과 놀부	전문요약	고소설	
			해님 달님	전문	민담	어휘 채우기로 내용 확인하기, 그림보고 내용

					추측하기, 묻고 답하기, 각국 이야기 비교, 줄거리 이야기하기
--	--	--	--	--	--

『서강한국어』는 초급에서부터 고전문학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초급 4과에 <콩쥐팥쥐> 설화의 본문을 제시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였는지 간략하게 메모할 수 있는 활용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중급인 『서강한국어3B』 5과에서 <금도끼은도끼> 설화를, 『서강한국어4B』 5과에서 <단군신화>를 제시하고 있다. 중급에서는 좀 더 다양한 활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초급에서와 같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묻고 답하기, 어휘지도 활용하여 내용 메모하기 등을 활용 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단군신화>에서 이해 영역을 확장하여 ‘자신이 나라를 세우면 만들고 싶은 법’을 쓰고 이야기하는 활용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고급 역시 초급·중급에서처럼 내용 이해를 위한 활용 형태 제시가 나온다. 방법은 그림을 활용하여 내용 추측하기, 어휘 채우기로 내용 확인하기, 묻고 답하기, 줄거리 이야기하기 등이 있다. 고급에서는 다시 발전한 활용 방안으로 각국의 비슷한 내용의 전래동화를 비교하여 이야기하기가 나온다. 그러나 작품에 기본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작품 속에 내재된 다양한 문화 학습내용은 여전히 적은 편이다.

3. 서울대학교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은 1969년 처음 한국어교육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교재로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편찬한 『한국어 1~6』을 사용하고 있다. 고전문학과 관련하여 『한국어 3~4』에서 본문 내용으로 고전문학 작품 5편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어』의 모든 과에서 연습 부분에 본문 내용 이해하기를 위한 연습으로 읽고 대답하기를 넣었다.

27) 『서강한국어 5B』 5과에 수록된 <금도끼 은도끼>는 텍스트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 CD를 통해 텍스트를 읽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듣기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들은 내용을 통해 여러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4] 서울대학교 『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단계	교재명	단원	작품명	제시형태	장르	활용 형태
중급	한국어3	27과	꿀단지 이야기	전문요약	민담	읽고 대답하기, 그림 순서 맞추기
		29과	거울	희곡문	민담	연극하기
중급	한국어4	2과	단군이야기	전문요약	신화	읽고 대답하기, 듣고 이해하기, 그림 순서 맞추기, 모국 건국신화 소개하기
		12과	우씨와 허씨	전문	민담	읽고 대답하기
		25과	홍부와 놀부	희곡문	고소설	읽고 대답하기, 어휘 연결하기, 성격비교하기, 그림 순서 맞추기

중급 단계인 『한국어 3』을 보면 27과에서 <꿀단지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본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연습에서 그림을 활용하여 본문 내용의 순서에 맞게 그림 순서 재배치하기를 넣음으로써 본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29과에서는 <거울>에 대한 내용을 희곡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연습에서는 문법 위주의 간단한 연습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활동으로 본문을 활용한 연극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급 단계 『한국어4』를 살펴보면 2과에서 본문으로 <단군신화>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연습 및 활용으로는 읽고 대답하기, 듣고 ○, × 하기를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모국의 건국신화 소개하기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인 단계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재의 전체 구성이 어휘와 문법 학습에 주안점이 있어 텍스트를 통해 문학 교육이나 문화 교육의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

4.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성균관대학교 어학원에서 편찬한 『배우기 쉬운 한국어』는 총 6편의 고전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4권 5과에 수록된 <단군신화> 외에는 모

두 민담이며 내용 파악 중심의 활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2-5]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단계	교재명	단원	작품명	제시형태	장르	활용 형태
중급	배우기 쉬운 한국어3	3과	혹부리 영감	전문	민담	읽과 답하기, 표현 익하기
	배우기 쉬운 한국어4	5과	단군신화	전문요약	신화	읽고 답하기, 자국신화 쓰기
		8과	말 한마디로 색시를 얻은 총각	전문	민담	읽고 답하기, 자신이 아는 옛 이야기 쓰고 의미 말하기
		20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되지요	전문	민담	읽고 답하기, 모국의 옛 이야기 쓰기
고급	배우기 쉬운 한국어 5	3과	바가지로 벽을 뚫은 아이	전문요약	민담	읽고 답하기
	배우기 쉬운 한국어6	2과	여우와 세 개의 주머니	전문	민담	내용 확인 학습 작문 연습

중급과 고급에서 총 6편의 작품이 수록된 성균관대학교의 『배우기 쉬운 한국어』는 중·고급 단계에 걸고루 고전문학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한두 편에 그치고 있다. 활용 형태는 읽고 말하기와 학습자의 경험에 의한 쓰기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5. 연세대학교 『한국어 읽기』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편찬한 『한국어 읽기』는 1급~5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고전문학 작품은 2급, 3급, 4급에 12편이 수록되어 있다.²⁸⁾

[표2-6] 연세대학교 『한국어 읽기』에서의 활용 형태

28) 이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어 읽기』 교재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특별활동에 사용되는 교재로 타 대학교의 기본 한국어교재와 달리 읽기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교재이다. 따라서 다른 교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이지만 다른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은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기관 중의 하나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단계	교재명	단원	작품명	제시형태	장르	활용 형태
초급	한국어 읽기2	6과	거울	전문요약	민담	내용 확인 질문
		6과	동물의 나이 자랑	전문	민담	내용 확인 질문
		6과	소가 된 사람	전문	민담	내용 확인 질문
		6과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	전문	민담	내용 확인 질문
중급	한국어 읽기3	5과	효녀 심청	전문	고소설	이야기 개요 작성하기
		6과	홍부전	희곡일 부요약	고소설	내용 이해, 단어 익히기, 생각해 봅시다.
고급	한국어 읽기4	9과	단군신화	전문	시조	요약하기, 내용 익히기, 내용 생각하기, 그림 보고 이야기 만들기

연세대학교 『한국어 읽기 2』의 6과에서는 ‘옛날이야기’라는 주제로 본문에 총 4편의 민담이 수록되어 있다. <효녀 심청>은 단원 총연습 중 ‘생각해 봅시다’에서 문제의 예시문으로 요약 발췌되어 있다. 단원 구성은 먼저 이야기 한 편을 제시하고 나서 내용 확인을 위한 사지선다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단원 마지막 총연습의 ‘생각해 봅시다’ 항목에서 옛날이야기 나오는 동물의 성격 쓰기와 비슷한 이야기 찾기를 한 후, ‘발음을 연습 합시다’ 항목에서 본문으로 제시된 이야기에서 발췌한 문장을 읽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읽기 3』의 5과에서는 <홍부전>을 희곡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활용 형태는 내용 이해, 단어 익히기, ‘생각해 봅시다’로 제시하였지만, 본문을 희곡 형식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연극 활동을 위한 대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 읽기 4』의 9과의 단원명은 「옛 이야기, 옛 노래를 찾아서」이다. 이야기 부분에 <단군신화>를 제시하고 나서 활용으로 ‘요약하기’, ‘내용 익히기’, ‘내용 생각하기’, ‘그림 보고 이야기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은 1962년 언어 분과를 지원하는 기구로서 처음 설립되어 1988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정규 과정이 개설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편찬한 『말이 트이는 한국어 1~5』에 서고전문학 작품은 초급, 중급, 고급에 모두 활용되고 있다.

[표2-7]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에서의 활용 형태

단계	교재명	단원	작품명	제시 형태	장르	활용 형태
초급	말이 트이는 한국어1	5과	우산장수와 짚신장수	전문요약	민담	
중급 말이 트이는 한국어4	말이 트이는 한국어3	14과	혹부리 영감	전문요약	민담	문법 연습하기
		1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전문요약	민담	토론하기
		2과	춘향전	전문요약	고소설	각국 사랑이야기 비교
		3과	홍부 놀부	전문요약	고소설	인물 성격 비교, 이야기 속 현대 상황 비교 평가, 이야기 현대 상황으로 재구성
		4과	바보 온달	전문요약	민담	콤플렉스 개념 알기, 온달콤플렉스·신데렐라 콤플렉스 비교하기, 콤플렉스 극복 의견 교환하기
		5과	효성 다한 호랑이	전문요약	민단	각국 호랑이 성격·특징 비, 각국 대표 동물 말하기
		6과	효녀 심청	전문요약	고소설	입장 바꿔 생각하기(내가 심청이라면), 인물 성격 비교, 이야기 재구성하기
		7과	콩쥐팥쥐	전문요약	민담	각국 이야기 비교, 콩쥐 팥쥐·신데렐라 비교하기
		8과	한석봉과 어머니	전문요약	민담	각국 이야기 비교, 인물 성격 비교
		9과	금도끼 은도끼	전문요약	민담	각국 이야기 비교, 인물 성격 비교

		10과	도깨비 방망이	전문요약	민담	각국 이야기 비교, 주제 확장(신용가드 장단점 이야기 하기)
--	--	-----	------------	------	----	---

『말이 트이는 한국어 3』에서 <혹부리 영감> 설화를 수록하고 문법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활용이 없고 단순히 문법 표현인 ‘-다가, -었/았다가’를 연습하기 위해 작품을 수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 4』에서는 꽤 많은 편수의 고전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고 주 활용 형태는 토론하기이다. 토론하기의 세부 활용 형태는 본문을 읽고 내용 악하기, 이야기 순서 및 주제 찾기, 제목 고르기, 교훈 파악하기 등으로 이해력 향상을 위한 활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상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고전문학 작품을 살펴본 결과 중·고급 과정 중심으로 실려 있으며, 고전문학이 수록된 단원의 연습 및 활용이 문법 확인, 각국 이야기 비교하기, 작품의 개괄적인 내용 이해하기 등 제시된 고전문학 작품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정도의 연습 과정과 각국의 비슷한 이야기를 비교해보는 정도의 활동만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학습자로 하여금 제시된 문학 작품의 줄거리 파악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문학 작품이 탄생한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배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정한 문학 교육으로서의 고전문학 교육이 될 수 없다.

7. 고전문학 작품의 활용 형태 분석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특정 주제의 한국 문화 요소를 정하고 나서 한국 문화의 특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설명이 대부분이다. 이는 문화의 겉모습에 대한 지식일 뿐, 학습자가 일상생활 속의 문화를 접하고 활용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교재 구성 단계에서 문화능력 함양을 위한 활용 형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교재 별 분석을 통해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4 영역 외에 문화능력 항목

에서 어느 정도의 활용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류한 표이다.

교재별로 앞에서 분류한 형태 중 읽기영역에 일반적인 읽기 연습 외에 어휘·문법 연습 및 내용 이해를 위한 활용도 포함했다. 이는 읽기영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로 어휘·문법 연습이 필요하고, 내용 이해를 위한 활용은 읽기영역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하기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 필요로 하다는 점 때문에 말하기, 듣기영역 모두 표시하였다. 다음은 한국어 교재에서의 활용 형태 양상을 정리한 표이다.

[표2-8] 한국어 교재에서의 활용 형태 양상

	단원	작품명	활용 형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	비교
전국 대	3권 3과	소가 괸 게으름뱅이	*		*			
	4권 18과	효녀 심청	*		*	*		
서강 대	2B 4과	콩쥐팥쥐.			*	*		
	3B 5과	금도끼온도끼	*	*	*			
	4B 5과	단군신화	*		*			
	5B 2과	청개구리 이야기	*		*	*		
		홍부와 놀부	*		*	*		
		해님 달님	*		*	*		
서울 대	3권 27과	꿀단지이야기	*		*			
	3권 29과	거울	*					
	4권 2과	단군이야기	*	*		*		
	4권 12과	우씨와 허씨	*		*			
	4권 25과	홍부와 놀부	*		*			
성균 관대	3권 3과	혹부리 영감	*		*			
	4권 5과	단군신화	*		*	*		
	4권 8과	말 한마디로 색시를 얻은 총각	*		*	*		
	4권 20과	여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민 되지요	*		*	*		
	5권 3과	바가지로 벽을 뚫은 아이	*		*			
	6권 2과	여우와 세 개의 주머니			*	*		
연세 대	2급 6과	거울			*			
		동물의 나이자랑			*			
		소가 된 사람			*			
		효성이 지극한 호랑이			*			

		효녀 심청			*		
3급 5과	홍부전			*	*		
	단군신화			*	*		
	한 손에 막대 잡고			*			
	방 안에 헛는 촛불			*			
	동짓달 기나긴 밤을			*			
	태산이 높다 하되			*			
이화 여대	짚 방석 내지 마라			*			
	1권 13과	우산장수 와 짚신장수		*			
	3권 14과	흑부리 영감		*			
	4권 1과	형님 민저 아우 민저	*	*			
	4권 2과	춘향전			*		
	4권 3과	홍부 놀부	*		*		
	4권 4과	바보 온달	*			*	온달 콤플 레스
	4권 5과	효성 다한 호랑이	*				
	4권 6과	효녀 심청	*				
	4권 7과	콩쥐팥쥐	*				
	4권 8과	한석봉 과 어머니	*				
	4권 9과	금도끼 은도끼	*				
	4권 10과	도깨비 방망이	*			*	신용 커드
	각 증력별 활용 횟수	26	3	30	15	2	76
각 증력별 활용 빈도		34.21	3.95	39.47	19.74	2.63	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어 교재에서 문학 텍스트가 제시된 단원의 활용 형태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및 문화 항목으로 세분하여 그 활용도를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활용 형태를 보이는 영역은 ‘읽기 > 말하기 > 쓰기 > 듣기 > 문화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읽기, 말하기 활동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읽기는 단순 내용 이해 수준의 활용 형태를 보이고 있고 말하기 역시 단순히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과 형식적인 말하기 연습이 대부분이다. 이런 활동들은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교재에 문학 텍스트를 제시하고서도 문학 교육이나 문화 교육에 대한 활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어교재에 문학 텍스트를 제시하는 이유가 없어진다.

이화여대 교재에는 유일하게 문화 항목 교육이라 할 만한 활용 형태가

제시되어 있는데 4권 4과에서 <바보 온달> 이야기를 읽고 온달콤플렉스가 무엇인지, 다른 콤플렉스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권 10과에서 <도깨비 방망이>를 읽고 한국인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용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한국 상황에 대해 학습자들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문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듣기의 경우 연습으로 직접 활용 형태가 제시된 경우는 듣고 이해하기, 토론하기 두 가지 경우뿐이지만 본문 내용으로 제시된 텍스트를 제시 단계에서 음성 등을 통하여 듣기로 활용할 수가 있다. 반면 문화 항목은 활용형태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는 문화 교육으로서 문학 교육이 학습자의 활용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 항목에 대한 활용 형태 제시를 하고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연습과 활용을 통해 문화 항목에 대해 이해를 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에서 기술된 고전문학 작품 활용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 교육을 활용한 활동 형태의 종류와 문학 강의 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문학 작품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통해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한국고유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학습하지 못하고 문법 교육과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주도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이 부족하고 고전 작품의 개괄적인 내용 이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을 활용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한국어교육에서 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목표와 함께 문학 교육이 가지는 목표도 함께 이루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활동 형태에 있어서 줄거리 이해 정도의 활에서

벗어나 문학을 통한 문화 이해 수준의 활동 형태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문화 항목을 개발하여 수업 중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화 항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전문학 교육이 단순히 텍스트 제시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전문학 작품에 내재된 한국의 전통과 생활양식,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까지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외국 학습자들이 현재 한국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며, 문학과 문화를 별개의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문학 작품 속의 문화 항목 개발과 교수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 3 장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수·학습 방안

제 1 절 고전소설 선정 기준과 <춘향전> 선정 이유

1. 작품 선정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

먼저 Bruce Pattison은 만약 문학이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적응이라는 점에 그 역할이 있다고 본다면, 어떤 작품을 선택할 것인가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보며, 학생들의 언어 능력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보편적인 체험 안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너무 어려운 작품은 오히려 문학에 대한 싫증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읽기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²⁹⁾

McKay는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위한 문학 텍스트의 조건으로 문학 작품이 어휘, 구문, 문체 등의 어학적, 그리고 문화적, 구조 성격 등의 문학적으로 쉬운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읽기에 비교적 쉬운 텍스트, 그리고 주제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문제를 다룬 텍스트가 좋으며, 길이가 비교적 짧고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며, 구문과 문체가 복잡하지 않은 문학텍스트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한다.³⁰⁾

Collie & Slater는 문학 작품을 선별하는 데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 학습자들의 어학 학습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적 요인으로 두고 있다. 즉, 독자와 텍스트 간의 진정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그 선택의 기준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 문화적 배경, 그리고 언어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작품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내용일 경우

29) Bruce Pattison 「The Literature Lesso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llen, Harold B., ed. (New York : Inc), pp. 195-198.1965

30) McKay, Sandra ,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16(4), pp. 531-532.1982.

문학 작품의 학습은 학습자들의 언어적·문화적 지식에 지속적이면서도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 과정에서 작품을 즐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므로 문학 텍스트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읽기 능력을 넘어서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이 한 층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재 선택의 방법으로 학습자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하거나 혹은 간단히 요약한 책들을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가장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³¹⁾

Thomas K. Adeyanju는 제2언어 학습 교실에서 문학 교육을 할 때 문학 텍스트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문학 교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언어 학습에 유용한 문학 작품은 현재 작품이어야 하고 문학적 가치가 풍부한 작품이어야 하며 흥미 있는 구조를 담고 있어야 하지만 정해진 수업 시간에 학습하기에 너무 길거나 문체가 어려운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상황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쇄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수많은 읽을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 많은 독서물 가운데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나라의 문학적 특성과 상황이 담겨 있는 문학 작품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높여 언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가치관, 역사, 정치적 상황 등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특성이 스며 있는 작품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낯선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하며 간접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선별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Collie, Joanne and Stephen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첫째, 외국인 학습자에게 흥미가 있는 작품을 선택한다. 다른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텍스트 자체에 흥미를 잃은 학습자는 오히려 문학 수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문학이 가진 감동, 재미의 요소가 잘 나타난 작품은 다른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언어 학습에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작품이어야 한다. 문화 교육으로서 문학 교육을 전제로 할 때 한국 문학 작품을 가르친다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의 문화 중 언어 예술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교육할 문학 작품은 문학적으로 그 가치가 검증된 것이라야 한다.

셋째, 학습자의 읽기 수준에 맞는 작품으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어려운 어휘나 문체는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 학습 자체에 흥미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뛰어나고 흥미가 있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학습의 장에서 학습자들에게 수용 가능하지 않다면 문학텍스트를 선정되기에에는 부족하다.

넷째,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 즉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상황을 담고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일지라도 자신들에게 친밀한 주제와 상황, 즉 보편적인 주제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학습자가 그 문학 작품을 자신의 경험과 사고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게 하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문학텍스트가 효과적이다.

다섯째, 한국인의 모습과 생활을 담은 작품이어야 한다. 한 나라의 문학적 특성과 상황이 담겨 있는 문학 작품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높여 언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가치관, 역사, 정치적 상황 등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특성이 스며있는 작품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낯선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하며 간접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2. 고전소설 선정 기준

문화교육을 위한 문학텍스트 선정의 기준을 마련해야 작품 선택에 용이 하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모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학교육이 아니라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위한 문학교육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작품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장윤정³²⁾은 문학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재들이 고려해야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호칭과 높임말은 문화적 특징을 가지는 한국어의 요소들 중 실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다.

② 문화적 특징을 가지는 한국어의 요소들은 언어 교육의 측면뿐 아니라 문화 교육의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③ 글의 내용에 한국의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이 투영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본문뿐 아니라 문화 해설란에서도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맞추어 난이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⑤ 대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는 반드시 갖춘다.

⑥ 문학교육의 내용에 학습 활동을 연계하여 학습자가 내용 이해를 확인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국어 학습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외국어 교육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학 교육에서 텍스트 선정을 위해 체크해야 할 목록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다. ³³⁾

[표3-1] 문학텍스트 선정을 위한 체크 리스트

코스의 유형	학생들의 유형	다른 관련 요소들
a. 학습자의 수준 b. 외국어 학습의 이유 c. 요구되는 외국어의 종류 d. 코스의 길이와 수업정도	a. 나이 b. 지적 성숙도 c. 감정적인 이해도 d. 흥미와 취미 e. 문화적 배경 f. 언어적인 배경 g. 문화적인 배경	a. 텍스트의 유용성 b. 텍스트의 길이 c. 활용 추출 가능성 d. 교수요목에의 적합성

32) 장윤정,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 분석』, 연세대학교 2002, 81쪽

33) Gluiilian Lazar, Literature and Languagd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56.

주은정³⁴⁾은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살피기 위해 한국어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의 주제와 내용', '작품의 길이'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는 수준과 읽고 싶은 흥미 위주로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고전 소설 작품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중급 수준 이상의 학습자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풍부하게 지닌 작품이어야 한다.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내용은 언어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한다. 무작위적으로 선택한 문화 내용은 학습자에게 문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쉽고, 이러한 문화 오해는 학습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초급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행동 양식을 중심으로 한 표충 문화를, 그리고 고급 단계로 갈수록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현상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심충 문화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문화 내용은 무작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의 언어 능력의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작품의 구성언어는 직접 한국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일상적인 한국어로 쓰여 있어야 하며 어려운 어휘는 문맥에 의해 추론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중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다양한 언어 표현과 함께 한국의 일상 문화를 제시한다. 중급 단계의 언어 능력에 맞는 한국 문학 작품이나 한국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하게 한다.

셋째, 학습자가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과 과제 등을 통해 수업 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 내용은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목표하는 언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은 학습자의 문화와 목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34) 주은정,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2002.

이해하는 것은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문화내용은 타문화와 자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골고루 담아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언어의 통합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작품 감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가 한국 고전 작품에 담겨진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에게 흥미를 주어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다.

3. <춘향전> 선정의 이유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여러 가지 옛 설화에 이야기가 덧붙여 오늘날의 <춘향전>이 되었다. 그래서 책마다 전해지는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한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 노래공연 양식인 '판소리'로 불려 오늘날까지 공연되고 있다. 이 작품은 한 사람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굳은 마음에 대한 찬사를 보내며,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에 대한 저항과 풍자를 보여 준다.

<춘향전>은 사람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던 여러 종류의 설화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 남자에 대해 정조를 지킨다는 열녀 설화, 원통하게 죽은 여인의 넋을 달랜다는 신원 설화, 암행어사가 권력자나 부자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암행어사 설화, 기생과 양반의 자제가 사랑한다는 염정 설화, 관리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으려 한다는 관탈민녀형 설화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춘향전>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춘향전>은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비록 양반의 후손이지만 어머니가 기생이기에 기생일 수밖에 없는 춘향은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한다. 이러한 이야기 구조는 <춘향전>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관리의 횡포와 신분제의 모순을 춘향이라는 인물의 저항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춘향전>은 마지막에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축제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어사출두 이후, 춘향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 기쁨을 누리고, 춘향 어머니 월매도 이에 동참하여 춤을 춘다. 이러한 축제적 분위기는 춘향이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당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한을 축제로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춘향전>은 지극히 한국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고전이다. 사랑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축제로 해결하는 모습은 슬픔과 괴로움을 그대로 두지 않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춘향전>의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나라 사랑이야기와 비슷한 점을 비롯해 중국에서는 양산박과 축영태(梁山伯與祝英台)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 서양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이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 많은 흥미와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제 2 절 <춘향전>의 학습목표 및 교수내용

1. <춘향전> 학습의 목표

고전소설의 수업 목표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소설을 읽고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소설 속에 담겨진 한국인의 가치관과 문화를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자국의 문화와 비슷한 이야기 요소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넷째,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여 언어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중심으로 '춘향전'을 통한 문화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전소설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문화이해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

적인 학습목표라 할 수 있다.

② 소설의 구조와 배경, 인물을 알고 한국인의 삶을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춘향전>의 배경과 구조, 인물은 한국인의 전통을 형성하는 바탕으로, 그것들을 알면 자연스레 한국인의 모습을 이해하여 문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한국어 고어의 의미를 알고 말하고 쓸 수 있다. 고어의 문제는 외국인에게 어렵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어휘풀이에 치중하면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이 때 사극드라마나 사극영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로 구성하여 흥미위주의 이해 정도로 접근하게 한다.

④ 한국의 전통문화와 신분제도를 알 수 있다. <춘향전>은 한 가족과 관련한 이야기의 확대로 전통적인 사회적 신분제도를 생각하고 그것이 현재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신분과 관련한 호칭을 할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⑤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상을 알아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에게 고전소설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한국인의 기저를 이루는 정서와 생각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2. <춘향전> 텍스트의 선정 기준 및 구성

고전소설의 기본 언어는 현대의 한국어에 맞아야 하며 방언의 사용이 제되어 실제 한국어 의사소통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표현과 문법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고전소설이 고어나 사자성어, 방언의 잣은 사용으로 기본적인 내용 이해에도 못 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재에 실릴 고전소설의 내용은 한국어 수준이 중급 이상인 외국학생이 읽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선정항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학교육을 위해서는 문학 작품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텍스트의 활용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타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습자 요구에 충실향한 수업이 가능하게 한다.

아무리 문학적 가치가 있고 한국 문화를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해도 학습자들이 소용할 수 없는 어휘와 문법 구조, 문체로 표현되어 있다면 문학텍스트로 활용될 수 없다. 이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학 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며, 오히려 한국어 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문학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텍스트 선정에 있어서도 언어·문법 학습과 더불어 한국 사회와 문화를 교육하기에 적합한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중 감상할 <춘향전> 현대어 텍스트는 2005년 푸른생각에서 출판한 <춘향전>에서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춘향전>의 텍스트는 아래 표와 같다.

<춘향전> 텍스트

숙종 때 전라도 남원에 사는 퇴기 월매에게는 춘향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하루는 오월 단오가 되어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방자를 데리고 광한루에 나와 봄 경치를 즐기며 시를 읊고 있었다. 그 때 마침 춘향이 향단을 데리고 광한루 앞에 있는 시냇가 벼들 숲에서 그네를 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네 뛰는 춘향을 발견한 이도령은 첫 눈에 반하여 방자를 시켜 만나보고, 그 날 밤에 집으로 찾아가 춘향의 어미인 월매를 만나 자기의 결심을 말하고, 춘향과 백년해로의 굳은 언약을 한다. 그 뒤 두 사람은 날마다 만나서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얼마 후 이몽룡의 아버지가 내직으로 옮기게 되어, 이몽룡도 아버지와 함께 상경하게 된다. 이에 이몽룡은 춘향을 찾아가 훗날을 기약하고 작별의 정을 나눈다. 이몽룡은 연락할 것이라 하고 말을 타고 떠난다. 이몽룡을 서울로 보낸 춘향은 날마다 반가운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지만, 소식이 없다.

이 때, 남원에는 새로운 부사로 변학도가 부임해 온다. 변학도는 부임하자마자 기생들의 점고부터 시작한다. 50명의 기생들을 다 점고해도 변학도 눈에 드는 기생이 없자, 남원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춘향을 강제로 불러들인다. 변학도는 춘향의 절대적인 미모에 넋을 잃고, 수청을 강요한다. 그러나 춘향은 죽

기를 각오하고 일부종사를 고집하며 수청을 거절한다. 이에 분노한 변학도는 형리에게 춘향을 형틀에 매어 치라고 명한다. 춘향은 매를 맞으면서도 수청을 거부하며 죽여 달라고 하다가 칼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변학도는 다가오는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최후로 수청을 요구해 보고 그 때에도 거절하면 춘향을 처형하기로 한다.

월매가 이 소식을 듣고 옥으로 찾아온 춘향을 안고 한탄하며 서울에 소식을 전하려 한다. 춘향은 월매를 말리며 옥에 갇힌 채 「장탄가」를 부르며 운다. 춘향이 달에게 이도령의 안부를 묻다가 잠들어 꿈을 꾸게 된다. 춘향은 그 꿈이 죽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수심에 가득하여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때 마침 점을 보는 봉사가 옥 밖을 지나가자 춘향이 월매에게 봉사를 불러 달라고 청한다. 춘향이 꿈 해몽과 앞날에 대해 묻자, 봉자는 이몽룡이 곧 올 것이라며 꿈과 까마귀 울음은 좋은 징조라고 말한다.

한편,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간 이몽룡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 전라도로 내려오게 된다. 부하들을 전라도 각 지역에 파견시키고 자신도 신분을 숨긴 채 민심을 살피러 나선다. 이몽룡은 도중에 만난 농부들에게서 춘향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춘향의 집을 찾아가 월매를 만난다. 거지꼴을 하고 나타난 이몽룡의 행색을 보고 월매는 실망하여 그를 구박한다. 그런데도 이몽룡은 태연한 척하며 옥으로 찾아가 춘향을 만난다. 춘향은 이몽룡의 행색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이몽룡을 부탁한다.

드리어 변학도의 생일이 된다. 각 읍 관장이 다 모이고 성대한 향연이 베풀이진다. 이 자리에 이몽룡이 걸인 행색으로 나타나 시를 읊어 모두에게 경고하고 간다. 그런데도 이에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술에 취한 변학도는 춘향을 불러내어 다시 수청을 강요하려고 한다. 바로 이 때, 이몽룡이 어사로 출두하자 생일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이몽룡은 변학도를 파직시키고 춘향을 구한다. 그리고 춘향을 서울로 데려가서 정실부인으로 맞이하여 백년해로하고,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어휘풀이】

퇴기: 기생퇴물.

백년해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 평생을 같이 즐겁게 지낸다는 말.

일부종사: 한 남편만을 섬김.

장원급제: 과거 시험 가운데 대과(大科)의 문과 전시(殿試)에서 갑과(甲科)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일을 말함.

제 3 절 <춘향전> 수업 구성의 실제

1. 각 차시별 학습목표와 구성

고전소설 <춘향전>의 수업은 4차시로 진행한다. 수업은 목표 설정 단계, 도입 단계, 전개단계, 정리 단계, 예고 단계로 일반적인 한국어 교수 학습 과정과 다르지 않다.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학습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학습자가 성취해야 하는 목표와 목표의 도달 여부를 확인할 기준을 설정한다. 도입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에 들어갈 준비를 살피고 작품에 대한사전 지식을 갖도록 간략히 인물, 사건, 배경을 설명한다. 전개단계에서는 소설 읽기 활동이다. 소설 주인공의 성격과 전형성을 파악하고 인물의 대립구조와 갈등 양상을 알아 기본 내용을 알도록 한다. 그리고 소설이 주제와 전달하는 바를 토론하게 한다. 정리단계에서는 소설에 드러나는 한국 문화적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자국의 문화와 가치관과 비교하고 독자적인 문화 가치를 인정하게 한다. 또한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말하기와 쓰기의 활동을 통해 자기 경험화가 이루어지게 한다. 고전소설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요소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한지 생각하고 변화되고 전승되는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표3-2]각 차시별 학습주제 · 목표 · 내용

차시 (50분)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내용
1	<춘향전> 내용이해	<춘향전>의 작품을 이해하고 기본내용을 파악한다.	<춘향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주제를 찾아 본다. 소설의 기본 줄거리를 파악해야 하므로 소설 전체를 과제로 읽게 한다. 고어의 의미를 알아 말과 글로 표현해본다.
2	<춘향전> 각 인물 분석 및 신분제도, 결혼문화 소개	<춘향전>의 인물 성격 및 각 인물 사이의 갈등 파악과 결혼문화를 이해한다.	과제로 읽은 <춘향전>이 어떤 구조인지 살피고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과 조선 사회를 알아본다. 주인공 '춘향'을 비롯하여 실존인물들을 알고 그러한 바탕 위에 <춘향전> 작품 시대의 사회 신분제도를 알아본다. 그리고 결혼문화에서는 타국 결

			한문화와 비교한다.
3	<춘향전> 춘향이 정조를 지키려는 열녀 정신	주인공 춘향의 일녀불사이부를 파악하고 전통적인 정조개념과 유교문화를 이해한다.	<춘향전>을 통해 열녀문화를 파악한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정조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의 유교문화를 소개한다.
4	<춘향전>에 나오는 판소리 "사랑가"를 들려주고 수업을 진행 한다.	판소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얇으로써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세시 풍습인 단오 명절에 대해 이해한다.	<춘향가>를 통해 판소리의 요소를 설명한다. 그리고 판소리의 장단을 설명한다. 이어서 판소리를 배우고 우리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세시 풍습인 단오 문화를 소개한다.

2. 각 차시별 학습지도안

1) 1차시 지도방안

▶ 목표설정

학습 목표로는 고전소설을 대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흥미 유발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므로 재미있고 쉽게 인식되도록 수업이 전개 되어야 한다. 작품의 주제 파악은 학생들이 실제로 작품을 읽고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춘향전>에 대한 감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쓰기와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다.

① 도입 단계

도입 단계는 학습자들이 고전소설을 감상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고 소설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야 한다. 학습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서 소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본 수업에서는 학습자에게 먼저 간단한 질문을 통해 고전소설 수업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고전소설에 대

해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오늘은 소설을 활용한 문화 수업을 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의 고전소설 중에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미있는 고전소설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간단한 질문으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으로는 오늘 배울 고전소설에 대한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한 의도로 소설의 제목을 알려주고 <춘향전>은 무슨 소설인지 말해보도록 한다.

② 전개 단계

먼저 <춘향전> 텍스트를 바탕으로 소설의 내용 파악을 위한 단계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소설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문화적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 파악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가. <춘향전> 작품의 주제에 담긴 의미

<춘향전>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과 이별 및 결혼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는 신분의 격차가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한다. 기생이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진 여인과 동정심을 바탕으로 이를 수용하는 양반 자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인간의 삶에서 언제나 재현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꿈을 가진 여인과 동정심을 바탕으로 이를 수용하는 부잣집 자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이 각 계층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은 요인은 무엇일까? 양반층의 입장에서는 이도령에 대한 춘향의 정절이 지배층의 유교 덕목에 합치되었으므로 이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로 고통을 당하는 삶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갈망하는 자신들의 소망과 춘향의 지향점

이 동질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열렬히 환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춘향전>의 주제가 지니는 의미는 인간의 보편성과 조선 후기 서민층의 소망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이 날실과 씨실이 되어 엮어진 작품이라는 점이다.

나. 지도상의 유의점

작품의 주제 파악은 학생들이 실제로 작품을 읽고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작품 전체를 읽고 줄거리와 감상을 미리 적어 오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나 참고서에 간략히 정리된 줄거리가 아니라 상세한 내용을 담은 줄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준비해 온 줄거리를 발표하고 작품의 종합적인 이해가 끝나면 주제 파악으로 들어간다. 교사는 학습이 제궤도에 오르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만약 핵심에서 벗어나면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③ 정리 단계

<춘향전>은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진 한국에 고유의 문화 양식으로 설화, 판소리, 소설의 특성을 두루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한민족의 전통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학습자들은 춘향전을 읽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볼 수 있고, 현실에 대응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작품의 내용에 대해 시간 순서에 따라 써보자.

- 퇴기 월매와 성 참판 사이에서 태어난 춘향은 才子佳人이다.
-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에 나와 구경하다가 춘향을 본다.
 - 몽룡은 춘향의 집을 찾아가 사람을 약속하고 첫날밤을 지낸다.
 - 남원부사가 내직으로 승차하여 상경하게 되어 이몽룡도 가게 된다.
 - 변 학도가 신관 사또로 부임하고 춘향의 소문을 들어 익히 들어 온 그는 기생 점거를 하다 춘향이 없음을 알고, 춘향을 끌고와 수청을 강요한다.
 - 춘향이 일부종사를 들어 수청을 거부하자 변 학도는 춘향에게 형벌을

가하고 옥에 가둔다.

-이몽룡이 장원 급제하여 전라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와 춘향과 옥 중 상봉을 한다.

-여사출두로 변학도는 봉고파직 당하고 춘향은 구출된다.

-춘향은 절행으로 인해 국왕으로부터 정렬부인의 직첩을 받고 3남 2녀를 낳아 이몽룡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린다.

[표3-3] 1차시 학습지도안

단원명	춘향전	학습대상	중급	차시	1/4			
목표	1. 작품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2. 작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구분	교수 · 학습활동		자료	유의점				
	교사/학생							
도입 (5)	<p>▶학습동기 유발 -<춘향전>과 관련 있는 사진 자료 보기-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 제시함.</p> <p>▶학습목표 제시</p>							
전개 (35)	<p>▶<춘향전>의 줄거리 확인하기</p> <p>▶<춘향전>의 배경지식 정리하기</p> <p>-<춘향전> 형성과정, -<춘향전>의 줄거리, -<춘향전>의 내용구조와 배경설화</p>							
정리 (7)	<p>▶<춘향전>작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기</p> <p>▶작품에 대한 감상 태도 정리하기</p>							
예고 (3)	<p>▶다음 차시 예고</p> <p>-작품에 소개된 일물 성격파악 및 신분제도에 대한 예습</p>							

2) 2차시 지도방안

▶ 목표설정

첫째, 인물의 성격,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작품에 나타난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해 이해한다. 셋째, 조선시대 결혼관 및 결혼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위의 목표 설정 이유는 소설을 보는 동안 학습자들은 단순히 소설 감상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조선시대의 신분제도 및 결혼관을 하습하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파악하며 영화의 주제도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① 도입 단계

<춘향전> 소설에서 춘향, 이몽룡, 월매, 변사또, 방자 및 향단의 성격을 분석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낸다. 왜냐하면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어떤 모습(신분, 성격, 행위)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문학을 통하여 현실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인물과 인물이 어울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탕으로, 독백의 형태를 취하는 시나 수필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따라서 소설 교육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또한 교육의 목표로 수반된다. <춘향전>의 인물면의 지도 방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② 전개 단계

<춘향전> 작품에 나타난 각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춘향 인물 소개 및 성격:

남원 고을에서 아름답기로 이름난, 기생의 딸이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마음 굳은 열여섯 살 소녀이다. 양반 댁의 몽룡과 사랑에 빠진 뒤, 한양으로 떠난 몽룡을 그리워하며 변 사또의 괴롭힘을 이겨낸다. 따라서 춘향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일편단심의 변치 않는 정절의 여인임이 드러난다.
학생들에게 평범한 인간이라도 이처럼 곧은 마음과 강한 신념을 지니고
살면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나. 이몽룡 인물 소개 및 성격:

명문 가문의 자제로 봄날 춘향의 그네 타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약속한다. 아버지가 한양으로 부름을 받아 함께 따라간 뒤, 과거 공부에 힘쓴다. 춘향을 위하여 암행어사 출도를 하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투쟁을 한다. 이몽룡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예를 들면 광한루에서 처음 춘향을 발견하고 방자에게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에서는 체면도 돌보지 않는 철없는 도령이고, 춘향과의 사랑 타령 장면에서는 심한 방탕아로 나오며, 이별하는 장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뻔뻔스럽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나약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본관 사또 생일 잔치에 거지꼴로 나타나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성격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암행어사 출두 후에도 춘향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녀의 마음을 떠보는 장면, 이로 볼 때 이몽룡은 인간의 다양한 성격 즉, 보편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 하겠다.

다. 월매 인물 소개 및 성격:

춘향의 어머니이며, 한때 인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일을 그만둔 나이 든 기생이다. 월매는 현실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능란하고 변덕스러우며 수다스럽고 경망스러운 뜻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행동을 하는 적극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월매의 성격을 학생들로 하여금 파악하게 하면서 특이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게 지도한다.

라. 변학도 인물 소개 및 성격:

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떠난 뒤, 새로 남원 고장을 돌보려 내려온 관

리이다. 그러나 백성의 살림은 돌보지 않고 기생들부터 불러 모으며, 약자를 괴롭히는 욕심 많은 사람이다.

마. 방자와 향단 인물 소개 및 성격:

각각 이몽룡과 춘향의 하인들이다. 이들은 양반에게 빌붙어 사는 전형적인 서민이다. 이들은 악인이 아니라 선한 인간으로 그려지면 춘향과 이몽룡을 맷어주는 역할을 한다.

바. 신분제도

조선시대 신분구조는 양반→중인→양인→천인으로 나누게 된다. 양반들은 최상위 신분층으로서 교육과 과거 응시 등에서 특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같은 양반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과 혼인을 한다. 또한 양반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자녀들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신분이 결정되도록 한다. 따라서 <춘향전>에서 이 도령과 춘향은 서로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즉 이도령은 양반의 자제이며 춘향은 비록 아버지가 양반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기생이지 양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지주 계층으로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이를 일반 사람들에게 빌려줘 경작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노비라 불리는 하인들을 소유할 수 있다.

양반들은 과거라 불리는 관리를 뽑는 시험에 독자적으로 응시할 수 있다. 실제 조선의 법적인 <경국대전>은 양반뿐만 아니라, 양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지만, 실제로 응시하는 사람들은 양반뿐이다. 따라서 양반들은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제대로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양반의 신분도 조선시대 커다란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약화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일본과 7년의 걸친 전쟁임 임진왜란과 중국과의 전쟁인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이 있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해 사회 지도계층이었던 양반들은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자신들의 양반신분도 많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춘향전>이 널리 읽히고 인기가 있었던 조선 후기에 소선 초기나 중기만큼 양반의 권위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양반이라는 신분 계층은 조선이 망하고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양반과 같은 신분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이나 생활태도, 그리고 이들이 굳건히 지켜 왔던 유교윤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 조선시대 결혼문화

조선 초기에는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던 일반적인 것이 일반적인 혼인형태였다.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꾸던 조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실에서 먼저 친영의 모범을 보여 일반인도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 건국 150년이 경과한 명종조에 이르러서야 이전의 혼인제도와 절충한 半親迎을 제도화하였다. 따라서 조선조의 혼속이 처가중심에서 시가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 부터가 아니라 조선중기 이후부터이다. 조선 전기의 혼제는 「大明律」의 적용을 받았다.

조선 후기에는 여성들의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여성의 권리가 축소되는 등 여성과 관련된 상례, 제례, 재산상속 등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조선시대는 당사자 스스로가 아닌 가문이나 부모들의 주변적 차원의 혼인이었으므로 조혼, 강제혼도 가능했다. 따라서 당시의 혼인은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시킨 채, 우선 양반사족 등의 신분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불리하였다.

세종 9년에는 14세 이하의 처자에 대하여 혼가를 금하였으니 조혼의 폐단은 국초부터 있어 왔다. 조혼의 원인을 살펴보면, 조부모 및 부모가 앓거나 늙었을 경우이다. 조부모 및 부모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혼취하는 것을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흔한 어린 신부들은 친가의 부모, 형제자매, 동류들과의 이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갈

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조혼제도는 조선여성들의 三從之道의 옛 법식에 의해서 일생동안 中門안에 갇히게 되는 생활을 앞당기는 일이며, 또한 어린 나이에 친정부 모와 이별을 해야 된다는 이중의 고통을 주는 일이었다.

조혼으로 인해 부모와 이별해야 하는 것은 어린 나이의 신부에게는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와 이를 진솔하게 그리면서 혼인제도 자체를 원망하고 한탄한다.

여성은 혼인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생소하다. 생활환경과 처음 대하는 시집 식구들과의 인간관계, 전통적인 윤리규범은 남성중심주의에 여성의 미덕인 인내와 순종, 삼종지도라는 굴레뿐이다.

이와 같은 여성에게는 시집살이의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보호 역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역할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혼으로 인한 철부지 신랑은 시가부모의 슬하에서 응석받이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조선조 여성들은 자신의 아픔을 알 수 없는 신랑에 대한 실망과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시댁살이에서의 불안감이 가사문학에 솔직히 표현되어 여성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은 집안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사이므로 본인의 생각을 묻는 일 없이 부모의 결정에 따라 얼굴도 모른 채 혼인을 치루어야 했다. 또 신분이 높은 집안과 혼사를 맺기 위해 상대를 고르는 이유로 사십세까지 시집도 못 가는 노처녀가 있었다고 한다, 위 작품에서 이런 부모의 허위를 양반의식에 대한 집착이라고 토로하면서 부귀빈천을 따지지 말고 인간이 되었으면 그만이라는 여성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성은 자유연애적인 생각을 대담하게 표현해 냈으므로써 조선 후기로 갈수록 혼인에 대한 여성의 자율적 의지와 비판의식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결혼에서의 위상은 조선 후기 유교적 이념의 강화로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억압된 현실 속에서 여성들은 수긍 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성의 의식은 성장하여 제도를 비판하는 모습을 규방가사를 통해 볼 수 있다.

③ 정리 단계

<춘향전> 원전 현대어 텍스트을 통해 <춘향전>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여 다양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가. 등장인물의 갈등 구조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민과 관의 갈등): 관리의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를 강제하려는 것으로 변학도의 수청 강요에 맞서 춘향은 저항으로 대항한다. 이는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제 의식과 관련되는 가장 중심으로 이루는 갈등이다.

이몽룡과 변학도의 갈등(탐관오리으로 응징하려는 이몽룡과 권력형 부조리의 표상인 변학도 사이의 갈등): 양심적인 양반세력과 민중이 연대하여 부조리 개혁.

춘향과 사회와의 갈등(신분적 계약을 벗어나고자 하는 춘향의 대 사회적 갈등): 이몽룡과의 사랑을 성취하고 정실부인으로서의 신분 상승을 획득함으로써 여성의 인간적 해방이라는 주제 의식으로 승화됨.

나. 갈등의 원인

조선 후기에 신분적 계층 의식이 약화되고, 권력자의 횡포가 심해짐에 따라 서민들이 신분 상승에 대한 반항적 욕구와 모순된 계층 의식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과 아래와 같이 토론하기로 한다.

- i) 각국의 결혼 풍습을 비교해 본다.
- ii)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랑이 이루어진 각국의 사례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소개한다(영국왕실, 신데렐라, 등등).
- iii) 자신이 춘향모의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결혼을 요구하는 몽룡에게 결혼을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편지형식으로 써 본다.

라. 학습활동

-<춘향전>의 등장인물 중, 각 배역에 가장 잘 어울릴만한 인물을 주변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

[표3-4] 2차시 학습지도안

단원명	춘향전	학습대상	중급	차시	2/4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향전>의 인물 성격 파악하기 ▶작품의 각 인물 사이의 갈등 파악하기 ▶작품의 신분제도 및 결혼문화를 소개한다. 						
구분	교수 · 학습활동 교사/학생		자료	유의점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향전>의 등장인물의 소개 ▶작품속에 각 인물의 신분을 확인한다.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전개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의 각 인물의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작품의 인물 사이의 갈등에 대해 소개한다. -춘향의 성격 -이몽룡의 성격 -변학도의 성격 -춘향과 이도령 -춘향과 월매 -춘향과 변학도 ▶작품 시대의 신분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양반 -중인 -양인 -천인 ▶그 시대 결혼관에 대한 이해와 현대 결혼관 사이의 차이점 ▶각 나라 신분제도 및 결혼문화에 대한 비교. 						
정리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장인물의 성격 ▶각 인물 사이의 갈등 및 원인 ▶각 인물의 말투 및 문체적 특징 ▶학습활동 						
예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차시 예고 -열녀불사이부에 대한 정조개념 및 유교문화 예습 						

3) 3차시 지도방안

▶ 목표설정

첫째, 춘향의 열녀불사이부 전통적인 정조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둘째, 한국의 유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유교윤리의 남녀차별과 구별관이 실제로 조선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본 차시는 열의 문화와 정절관념을 통해 제품을 파악하려고 한다.

① 도입 단계

열녀란 남편을 위하여 온갖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여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아내나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춘향전>에는 기생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춘향과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춘향전의 주제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 난 인간 해방' 혹은 '여성의 굳은 정절'로 정리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속박이나 차등, 예속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제시하기에 진보적인 의미를 지니는 한편 후자의 경우, 전통 윤리를 강조하기에 보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주제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 관계에 있다. 즉, 신분상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표면적 수단으로 정절을 내세운 것이다. 사회 규범상 신분 격차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면서, 정절은 사회규범에 순응한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신분을 초월한 애정을 이루기 위해 정절 관념(유교적 윤리 규범)을 도구적으로 내세운 것이라 보이야 할 것이다.

② 전개 단계

조선시대 사회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유교 이념이다. 유교는 사회질서를 매우 강조하고, 사람의 신분마다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말고 충실히 것을 요구한다. 유교의 중요 규범인 삼강오륜을 보면 먼저 삼강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간에 지켜

야할 도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륜은 이와 비슷하게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부부, 그리고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른 도리, 친구 사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서 유교 이념이 특히 중요시한 것은 효과 열이다. 효란 자식된 도리를 가지고 어버이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열은 부부 사이에 있어서의 여자의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남편에게만 믿음을 지킨다는 덕목으로 조선 후기에는 효만큼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정절이나 순결이 법으로 정해지기까지 했다. 1486년(성종 16)에는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서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성이라도 정절을 지키지 않고 재혼한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벼슬에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여성이 두 번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절개가 굳은 여자는 다시 시집가지 아니한다'(忠臣不事二君, 貞女不更二夫)는 유교 윤리를 충실히 지키기 위함이다.

<춘향전>에서도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이몽룡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유교 이념, 즉 열에 따라 두 남자를 사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변학도는 춘향이가 "어째서 한 여인에게 두 남편을 섬기라 하십니까? 사또께서는 나라의 관리로 일하고 계시면서, 나라가 기울어지면 두 임금을 모시려나 봅니다."라는 말에 크게 화를 낸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기는 것은 양반 관리가 나라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춘향의 비유는 변학도를 나라를 배신하는 역적에 비유한 것이며, 양반 관리였던 변학도에게 이러한 비유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춘향이가 자신의 정절을 지며 이몽룡과의 사랑을 얻어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실제로 여성에게 강요되는 이러한 정절의 관념은 사실 조선 시대 여성들의 삶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주었다.

남성의 경우 아내가 죽으면, 1년 정도 아내의 죽음을 기리는 상복을 입고 나서는 다시 결혼할 수 있었지만, 양반 계층의 여성은 평생을 두고 죽은

남편을 위해 상복을 입고 홀로 살아야 한다. 사실상 한국에서 남편이 죽고 없는 여성을 일컫는 미망인이라는 말은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인'이라는 뜻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여성들은 죽은 남편을 위해 혼자 사는 것이 매우 훌륭한 미덕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양반 계층의 여성들은 남편이 죽게 되면 홀로 사는 것이 일반화였다. 더군다나 나라에서는 이렇게 홀로 산 여성들을 '열녀'라 칭송하고 그 집 앞에 붉은색 대문을 세워서 홀로 산 여인의 높은 정절을 칭송하기도 했다.

사실상 춘향이는 이러한 정절을 지킨 조선시대 열녀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춘향이가 변 사또에게 저항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정절을 지킨 훌륭한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③ 정리단계

학습활동

-춘향은 몽룡이 떠난 후에도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모진 형벌을 받는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사귀던 이성보다 여러 면에서 조건이 좋은 이성이 나타나서 사귀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향전>의 주제와 유사한 작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자.

[표3-5] 3차시 학습 지도안

단원명	춘향전	학습대상	중급	차시	3/4
목표	▶춘향의 열녀불사이부 전통적인 정조 개념 ▶유교문화의 소개				
구분	교수 · 학습활동		자료	유의점	
	교사/학생				

도 입 (5)	▶<춘향전> 작품에 대한 각 장면별 감상 및 춘향의 태도 변화 ▶학습목표 제시		
전 개 (35)	▶열녀문화의 소개 ▶유교문화의 소개 ▶각 나라와의 문화 비교 및 유사한 작품 소개	텍스트	
정 리 (7)	▶본시 학습 내용 정리 ▶과제 제시 -춘향의 하옥의 의미 -암행어사 과정과 당시 사회적 현실 ▶학습활동		
예 고 (3)	▶다음 차시예고 -판소리 문화 및 명절문화에 대한 예습		

4) 4차시 지도방안

▶ 목표설정

첫째, 판소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얇으로써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둘째, 판소리를 듣고 판소리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어 개관적으로 목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판소리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느껴 본다. 넷째, 소설<춘향전>을 감상하며 한국의 세시풍습인 단오를 이해할 수 있다.

소설<춘향전>은 판소리 <춘향가>와 영상적인 결함을 시도한 작품으로 이몽룡과 춘향의 사랑과 이별을 중심으로 대답하게 청각적 이미지인 판소리와 더불어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쉽다.

① 도입 단계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 중에 하나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은 양식상 판소리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판소리계 소설을 더

잘 이해·감상하기 위해서는 판소리의 특성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춘향전>은 먼저 판소리 <춘향가>로 만들어졌다. 판소리란 한 사람의 창지가 북으로 반주를 해주는 고수와 함께 '판'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며 노래와 이야기를 섞어 진행하는 1인극으로 지극히 한국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공연 양식이다. 이어서 한국 세시 풍습인 단오 문화에 대해 소개한다.

② 전개 단계

가. 판소리 문화에 대한 소개

판소리란 한국 고유의 음악극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부채를 들고 소리로 공연을 하는 가수 한 사람을 '창자' 즉 소리꾼이라고 하며, 이 소리에 북장단을 맞추어 주는 공연자 한 사람을 가리켜 '고수'라고 합니다. 즉 판소리는 소리꾼이 북소리에 맞추어 노래와 말과 몸짓을 섞어 가며 긴 이야기를 엮어 가는 음악극이다.

나. 판소리의 특징

판소리에서 판이라, 한 판 두 판, 즉 넓은 마당을 놀이판으로 삼아 '판을 벌인다'는 뜻에서 왔다. 곧 판놀음으로 하는 소리 연극이라는 뜻이다. 판소리는 한국의 전통예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자유로움'과 '즉흥성'이 잘 나타나 있는 연극 양식이다. 즉흥성이란 보통의 연극이나 영화에서 대본에 미리 짜여 있지 않은 이야기, 즉 애드리브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것은 판소리의 대본이 기둥 줄거리만 같고, 사이사이 삽입된 이야기는 소리하는 사람마다 임의로 덧붙이거나 바꿔는 것이 허용되었음을 뜻한다.

판소리는 소리꾼의 독무대가 아니다. 북을 치는 고수가 없이는 소리꾼이 있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고수는 중요한 존재이다. 고수는 오케스트라와도 같은 '반주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지휘자'로서의 구실도 한다. 때로는 소리꾼과 말을 주고받는 상대 배우로서의 역할도 한다.

판소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추임새이다. 판소리를 즐기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신명이 나야 한다. 추임새는 공연 중간중간에 적절한 곳에서 '얼씨구' '좋다' '그렇지' 등과 같은 감탄 언어를 넣어 주어 가수의 흥을 돋우고 듣는 사람을 소리판에 함께 어울리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극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하므로, 이 추임새도 공연의 중요한 일부라 할 수 있다.

판소리는 극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오페라와 비교할 수 있다. 조금 다른 점이라면, 관객들이 대체로 엄숙하고 웅장한 오페라를 보면서 함께 웃고 떠들거나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다. 한국의 판소리는 듣는 사람이 함께하는 음악극 양식이기에, 누구나 쉽게 가담하여 주인공들과 웃고 우는 공감대를 나눌 수 있다.

다. 판소리 소설의 특징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①초기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비범한 영웅형인데 비해 판소리계 소설에 이르러서는 범인형 주인공이 등장한다. ②판소리계 소설은 대체로 근원설화→판소리→소설이라는 형성과정을 거친다. ③판소리계 소설의 내용은 현실적 경험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④판소리계 소설은 민중의 약동한 정서와 생활상이 진솔한 토속적, 해학적, 직설적 문체로 표현되었다. ⑤판소리계 소설은 대부분 민중의 삶의 현실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라. 판소리의 유래

판소리는 18세기 초에 생겨났다고 전해지며, 18세기 중간에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원은 훨씬 오랜 옛날의 여러 무가나 무대 양식에서 비롯된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설화를 그 뿌리로 하여, 역시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나 감동을 주기 위한 삽화 등 많은 문화적 요소들을 첨가하여 번해 온 것이다. 그래서 판소리는 그 형성 과정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문화의 총결산

과도 같다.

판소리 공연은 서민적인 감정을 담은 경우가 많지만, 19세기 전성기를 맞이했을 무렵에는 양반 즉 귀족들을 청중으로 하였다. 그래서 양반들의 감정에 맞게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기도 했으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 양반의 문화에 좀 더 접근하려 했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에는 마침내 왕실에서도 공연하게 되었다.

마. 한국 문학에 소개된 판소리 작품

한국의 판소리에는 열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이 책의 이야기를 노래곡으로 꾸민 <춘향가>와 함께,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전벽가>, <변강쇠타령>, <옹고집타령>, <무숙이타령>, <강릉매화타령>, <장끼타령>, <배비장타령>, <가짜신선타령> 등이다. 그러나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전벽가>만이 불인다.

바. 한국 세시 풍습인 단오의 이해

한국 고유의 풍습이었던 단오, 음력 5월 5일에 춘향과 이몽룡은 광한루에서 만났다. 조선 시대에는 남녀가 유별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계기는 단오날에 여자들은 그네를 뛰는 풍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멀리서 이몽룡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단오는 일명 수릿날, 중오절, 천중절, 단양이라고도 한다. 단오의 '단'자는 처음 곧 첫 번째를 뜻하고 '오'자는 다섯의 뜻으로 통하므로 단오는 첫 번째 맞는 다섯 번째 날이라는 뜻이 되겠다.

사. 단오에 하는 일

단오는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의 초여름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이다. 즉 씨뿌리기를 끝내고 단오를 지내면서 뿌리 놓은 작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행사이다. 단오 행사는 한반도 북쪽으로 갈수록 번성하고 남으로 갈수록 약해지며, 남쪽에서는 대신 추석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단오는 농업의 사회적 의미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명절로 생각되지는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아직 강원도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강릉 단오제라는 커다란 행사가 남아 있기도 한다.

아. 단오에 먹는 음식

단오의 대표적인 음식은 수리취떡이다. 이 떡은 수리취를 넣은 절편인데, 수레바퀴의 바큇살을 넣어 둥글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단오의 다른 이름이 ‘수릿날’-이 수릿날이란 말의 유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높다’는 뜻이라는 추측이 현재로선 대세인 뜻하니 만큼 그 이름과 연관 되는 풍습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수리취를 구하기 어려울 땐 쑥으로도 대신할 수 있다.

자. 단오의 민속놀이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이다. 그네뛰기는 여성들의 대표적인 놀이로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대표적인 남성들의 놀이로 씨름대회가 있다. <춘향전>에서 춘향도 단옷날을 맞이하여 그네뛰기를 하다 이도령을 만나게 되는 셈이다.

또한 궁중에서는 이날 단오부채 등을 만들어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다가올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라는 의미이도 한다.

③ 정리 단계

문학교육이 인간교육의 성격을 지니며 단순한 지식의 교육이 아닌 ‘정서를 포함하는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교육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춘향전>을 공부하면서 새로이 알게된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 조선 후기 사회 현실에 대한 비평 등을 적어오게 한다. 또한 <춘향전>의 판소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학습활동

-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의 특징을 알아보자
-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이후에 어떠한 관련 작품들이 나왔는지 알아보자.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의 세시 풍속인 단오를 통해 관습, 세계관, 가치관 등 그 지역 사람들과 타 문화권 사람들 간의 문화적 특징을 구별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 양식과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현대 생활의 사고방식과 밀접히 관계되는 것으로 현대의 생활과 접목시켜 보는 데 의의가 있다.

[표3-6] 4차시 학습 지도안

단원명	춘향전	학습대상	중급	차시	4/4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향전>의 나타나는 판소리 문화에 대한 이해 ▶ 세시 풍습인 단오에 대한 이해 				
구분	교수 · 학습활동 교사/학생		자료	유의점	
도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향전> 작품에 나타나는 판소리 문화에 대한 감상 ▶ 명절문화 소개 				
전개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 관련 배경지식 형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 기원, - 판소리 가창방식, - 판소리 장단 ▶ 판소리 형성의 역사적 배경 이해 ▶ 한국 고전소설 중 판소리계 작품 소개 ▶ 세시 풍습인 단오에 대한 소개 		인터넷 동영상 감상하기		
정리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소리 형성의 문화사적 배경 정리 ▶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적 특성을 정리 ▶ 판소리계 소설의 서사구조의 특징 정리 ▶ 한국 세시 풍습인 단오에 대한 정리 ▶ 학습활동 				

제 4 장 결 론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 문학 작품을 읽힌다는 것은 한국 문학의 향기를 맛볼 수 있게 하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돋는다는 면에서, 또 학습자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돋는다는 면에서 유익하다. 문화 교육으로서 한국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첫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학습자가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인가 하는 것이다.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과 이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 정도가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능력 수준을 따져봐야 하고, 또 학습자의 시대적인 감각과 맞는 작품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작품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할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감상할 만한 작품인가 하는 것이다. 즉 외국인 학습자가 읽을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뜻이다. 문학 작품으로서 향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에게 읽히기에 지나치게 한국인의 치부를 드러낸다든지 작가의 편협한 생각이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한국인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적당하지 않다. 한국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하는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 줄거리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어야 한다.

고전문학은 한국인의 전통적 정신이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 좋은 읽기 자료가 될 수 있다. 고전문학의 다양한 갈래 중, 고전소설 작품을 통한 교육은 한국문화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옛날부터 형성된 한국인의 정서, 생활습관, 가치관, 자연, 삶의 태도 등을 배울 수 있어 유용하다.

이러한 고전소설을 통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고전소설 <춘향전>에 드러나는 한국문화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4차시에 걸친 수업을 설계하였다. 1차시는 <춘향전>을 간략히 소개하고, 작품의 역사적 사건과 조선 사회를 알아 한국의 역사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춘향전>의 기본 줄거리 파악을 위한 소설전체읽기 과정이다. 2차시는 <춘향전>에 나타나는 각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또한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와 결혼관을

소개하며, 각 인물의 갈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3차시에는 작품의 주인공인 춘향의 정조개념과 유교문화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졌다. 4차시에는 <춘향전> 작품은 판소리계 작품으로서 판소리에 대한 소개와 한국 전통적인 명절문화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으려면 한국어 교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 한국 문학에 대한 지식과 한국문화요소를 인식해야만 언어와 문화가 통합된 문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들은 실제 교수현장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개선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 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경로도 형성되고 활성화되어 문학교육 시에 유용했던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을 나누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방안들을 세울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문화현상을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치하지 않은 사회현상들과 생활양식들조차 결국엔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바탕위에 기인한 것들일 것이다. 자국의 문화를 돌아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는 세계화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필수적 요건이라 하겠다. 한국어 교육 또한 한국이라는 문화를 전달함에 있어서 앞서 말한 요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건국대학교(2005), 『한국어』,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건국대학교 출판부.

서강대학교(2007), 『서강한국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성균관대학교(2006), 『배우기 쉬운 한국어』, 성균어학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 (2009),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2005), 『말이 트이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2006), 『한국어 읽기』,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세대학교 출판부.

2. 국내문헌

김미진(2009), 「설화를 통한 한국어교육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김성하, 진태하 편저(1984), “고전문”, 문호사 .

김복희(200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과정중심 독서 지도의 방법과 실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제10호, 한글학회.

김영희(2005), 「판소리 문학 교육방법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2003), 「소설중심의 독서교육방법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식(2003), 「수준별 과제제시를 통한 국어과 수업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2002),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진(2002), 「판소리계 소설의 수업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 김혜경(1991), 「고등학교 고전소설 교육 연구」, 이대 석사학위 논문.
- 고혜화(2009), 「신문을 이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 곽지영 외(2007), “한국어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보라(2009),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갑수(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제23화.
- 박원석(2005), 「페러디를 통한 고전소설 지도방안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희정(200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전 서사문학 작품 선정 방안」, 『고황논집』 36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윤경(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주철(2004), “한국어교육에서 한국 문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커뮤니케이션북스,
- 안희은(2009),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염은열(2000),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역락.
- 염은열(2007), “고전문학의 교육적 발견”, 역락,
- 이성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방안」,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숙진(2008), 「고전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선(2008),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미정(2008),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여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화교육”, 한국 문화사
- 윤여탁(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화교육”, 한국 문화사.
- 윤미정(2008),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정(2008),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상철(2004), 「현장학습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집,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한국어 교육』 9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정은화(2001),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시 교육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정(2002),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순홍(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은정(2002),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2006), “문학교육과정론”, 역락.
- 횡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기초단계의 문학작품 읽기를 중심 으로-」, 『이화어문논집』 16집, 이황문학회.
- 홍혜준(2003), 「고전작품을 통한 한국문화교육,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 외국문헌

Brown,H.D.(2000), Principles of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4th Ed.).

Brown,H.D.(2001), Teaching by principles:An Interaction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2nd Ed.).

Bruce Pattion(1965), 「The Literature Lesso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llen, Harold B., ed. (New York: Inc),

Collie, Joanne and Stephen Slater(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Pescouro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ane Larsen-Freeman(2000),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Gluilian,Lazar(1993), “Literature and Languagd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J. Collie and S. Slater(1987), Listerature in the language clasroom: A Resouro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Kay, Sandra (1982),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TESOL Quarterly 16(4), pp.531-532.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Culture Education of "Chunhyangjeon"

- Targeting Foreign Learners -

Jin Yi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Culture has many factors such as knowledge, lifestyle, the worth, the attitude to life, religion, space-time, cognizance, the custom, nature, history and the emotion. Therefore it is an essential basis to understand a language. For this reason people who learn the language must try to comprehend culture of the language and have many cultural experiences by comparing with their own culture. What they have thought, how they have lived and what they consider worthily have been melted into the language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hese things are always repeated today.

These days it is discussed actively to educate the Korean culture by learning its literature. It is very effective to educate the Korean culture through classical novels among various literary genres for the reasons as follow.

By comprehending the traditional Korean deeply, the life used in

Korean can be formed and Korean's emotion, lifestyle, the worth, nature, and the attitude to life are learned. The target level of this paper is for students learning Korean as foreign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n cultural education focusing on literature <Chunhangjeon>.

We will discuss learning such the cultural experiences as Pansori, social level of Chosun, and Dano in Chunhangjeon and then simply propose them a binary: a big culture and a small culture. Here will show an example applied a big cultutr(social level of Chosun and view of marriage) and a small culture(Pansori and Dano).

There are necessity of literary and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classical novels. 4 periods of this lesson plan are accomplished based on the educational value of <Chunhangjeon>. This paper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eal situation of Korean education as a useful teaching material because it contains <Chunhangjeon>'s features that are analyzed literally and is shown to apply to the lesson.